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2월 10일(주일) 제1470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12월 11일~1월 20일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12월 11(월)부터 2024년 1월 20일(토)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주별 주제를 따라 말씀을 선포한다. 1주(12월 11~16일)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감', 2주(12월 18~23일)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함', 3주(12월 25~30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거절함', 4주(1월 1~6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 5주(1월 8~13일)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 6주(1월 15~20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다. 이재훈 위임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등이 설교할 예정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유튜브, CGN Live)로 참여하면 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취지는 각 성도가 2024년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 역량을 강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임하는 성도들의 기대감도 컸다. 임희창 장로(동대문중앙공동체)는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청구 장로(성동광진공동체)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문지호 집사(한강공동체)는 "이번 40일 작은예수 새벽기도회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막 올라

16일까지 이웃에 쌀, 반찬 등 전달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이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95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랑앓나눔은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쌀, 반찬 등과 함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지난 12월 2일(토) 하늘대학부를 시작으로 12월 9일(토)과 16일(토)에도 이어진다. 사랑앓나눔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서울 시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1천 75가구에 쌀, 반찬 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관련 기사 5면〉**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감사예배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온누리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았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12월 10일(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찬양,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축복,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정재욱 목사(부천온누리교회 담당)는 "부천온누리교회가 20대 청년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부천온누리교회가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부천온누리교회는 지난 2002년 12월 15일 국내 세 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차세대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cts29 비전'을 따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비전이 이끌어 가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소망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23~24일 성탄주일예배, 25일 성탄가정예배
24~25일 성탄절 콘서트, 크리스마스 블레싱 등

온누리교회가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12월 23-24일 성탄주일예배, 25일 성탄 가정예배, 24-25일 성탄절 콘서트, 9-25일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연말까지 미디어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도 이어진다.

12월 23일(토)과 24일(일)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성탄주일예배'를 드린다. 25일(월)에는 '성탄가정예배'를 드린다. 23-24일 주일예배에서 가정예배 순서지와 도움 영상을 배포한다.

12월 24-25일에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절 콘서트'가 열린다. 12월 24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과 양재 사랑홀에서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 12월 25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과 양재 사랑홀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가 진행된다.

'성탄절 콘서트'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설교한다. 손범수 아나운서, 진양혜 아나운서, 영화배우 강석우가 사회를 보고, 김영미 권사, CCM가수 이광재, 가수 범키, 이한진브라더스 밴드, 개그우먼 조혜련, 배우 최강희, CRUX, 더 블레싱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 전도대상자를 초대하고 싶은 성도들은 12월 18일(월)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The gift'로 하면 된다.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는 신청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선착순 입장한다.

대학청년본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104개 팀이 참가한다. 전국 지역교회,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를 방문해서 성탄예배, 어린이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선물 나눔, 블레싱 등을 할 예정이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는 12월 20일(수)부터 연말까지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에 올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12월 17일(일)까지 성탄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카드'를 제작해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3)나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2층 IT지원팀 이경희)이나 동빙고 근린공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옆 '빨간 우체통'에 작품을 넣어도 된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소속 캠퍼스, 공동체,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당신을 붙잡고 있는 꿈이 있는가

창세기 37:1~11

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꿈을 영상으로 보여주듯이 펼쳐 보인 이 연설에 나타난 그의 꿈이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었고,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꿈을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루터 킹 목사가 품었던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교회를 붙잡고 있는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성경에 근거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그 어떤 조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려면 요셉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성품을 닮지 아니하고, 잘못을 행하던 형들 같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면 환경이나 가정 배경이 한 사람의 성품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통로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신비로운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그를 무너뜨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꿈이 산산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 깨어진 꿈이 또 다른 섭리로 나타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꿈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무의식의 표출’ 혹은 ‘과거 기억의 잔재’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

러나 때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실 때 꿈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그 꿈이 너무 강렬하고 생생해서 깨어있는 중에도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이뤄진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받고, 계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 음성, 교회 공동체, 말씀, 성도들의 간증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요셉처럼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이들도 더욱 신실한 믿음을 요셉이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믿음의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헛된 꿈에 이끌려 무너지고 맙니다. 상황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시련이나 유혹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먹으면서 자라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뛰어넘어 이루어집니다.

‘편애’의 부정적 영향력을 극복

요셉이 17살에 꾸는 꿈은 두 개였습니다. 두 개의 꿈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반복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의미하는 뱀단과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최초의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야곱의 편애입니다.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기에 전체 가문에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 간에 심각한 불화와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내력인 ‘편애’라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고, 야곱이 어머니의 편애를 경험했던 아픔이 있었다면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 아픔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의 죄악이 자녀에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죄’라고 말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끊어야 합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거야’라고 분명히 결심하는데, 어느 날 보면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들이 ‘나는 절대로 안 때릴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적대자와 동일시되는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한 사람에게 집착하면 결국 닮아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어느새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진급 신고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고, 제 옆에는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하는 장교 진급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앞에서 신고를 하니깐 바짝 열었습니다. 그 사단 인사참모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제 옆에서 중위에서 대위가 되는 분이 자꾸 계급장을 달 때 “대위 000”라고 해야 하는데, 계속 “중위 0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저거 하나를 못하냐. 중위까지 되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니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단장 앞에서 “대위 이재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두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계속 ‘대위라고 해야 하는데 왜 못 할까? 저거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찌자는 거지? 저분은 장기로 군인이 될 분인데, 우리나라 국방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 저거 하나를 못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에 ‘대위’라는 말이 가득해서 제가 소위에서 대위로 진급을

“모든 성도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인생 되십시오.”

신고해 버렸습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자신도 똑같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갈등이 많았겠지만, 결국 자신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문에 ‘편애’라는 죄가 계속 흘러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요셉의 성품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 야곱이 이기적인 성품이 되었다면, 혼자만 채색옷을 입혀주는 사랑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야곱의 편애가 가져오는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7장 12절 이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요셉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형들을 찾아다닙니다. 계속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도단으로 갔습니다.”라고 합니다. 도단은 거기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건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기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채색옷도 입지 말아야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것까지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도단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성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갑니다.

사실 요셉이 도단에 안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가 봤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어디서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이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곧은 성품, 미움 받은 또 다른 이유

둘째, 형들의 미움과 질투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 다. 요셉만 채색옷을 입는 것도 미움의 이유였지만, 더 중요한 미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요셉이 미성숙한 고자질쟁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항상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의 ‘울곧은 성품’으로 해석합니다. 분명한 잘못을 분별했다는 점은 분별력이고, 또 용기 있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잘하고 있는 형들을 짚아내려서 자기만 사랑받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형들이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도 “요셉이 악의로 고자질한 게 아니라 신실한 동생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동생으로서 형들을 훈계할 수 없으므로 훈계할 권위와 책임이 있는 아버지에게 알려져 형들을 바로 잡도록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정직한 성품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미움을 받더라도, 형들이 잘못을 고치도록 하려는 정직한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고자질에서 자기만 사랑받으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지키고,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려는 신실하고 정직한 성품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꿈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들은 정직하고 의롭게 옳은 길을 가려는 하나님의 꿈을 구렁이 속에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항상 구렁이와 함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 구렁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대들을 준비하십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 없이 구렁이에 던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렁이마다 약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미숙함에도...

셋째, 요셉의 미숙함입니다. 요셉의 미숙함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정직함입니다. 요셉의 미숙함이 어디서 발견되니까? 그의 꿈은 정말 분명한 의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평소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8절).

형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받아들일 믿음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며 냈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야곱조차 요셉의 꿈을 듣고 책망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 네게 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10절).

야곱도 받아들이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들과 아버지의 수준을 알면서 꿈에서 본 그대로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작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오랜 시간 속에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 꿈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꿈을 확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서두르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그 꿈이 그의 성취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간 속에서 제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손보시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를 손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요셉을 손보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

셨지만,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그 꿈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속에서 연단되고, 제련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선불리 형들과 아버지에게 꿈을 말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이지만 요셉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완전한 성숙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요셉이 받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가 이집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미숙함에도, 형들의 미움과 질투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도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주인 된 세상을 꿈꾸다가 더 퇴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잘 사는 꿈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의 이웃들이 굶주리고, 재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야 할까요?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빵이 필요한 나라에게 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마지막 때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경적 부부관계

부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된 관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대행하는 청지기로 삼으셨다(창 1:27~28).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다시 한 몸을 이루라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창 2:24). 세속문화의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부부관계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따라야 한다.

첫째,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다. 세속의 문화나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다. 설령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족기본법 등을 통해 동거, 동성혼 등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결혼을 추구하는 것은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남녀의 연합 속에 상호보완의 특성을 포함해 두셨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해부학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심리적, 생리적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다른 특성은 상호보완하고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 로저 스크루턴 경은 “모든 사회에는 한 세대의 일이 다음 세대의 복지에 바쳐지는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결혼은 단순히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적 욕심에 대한 방어막이자 독특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협력이며,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서 각 파트너의 효율성을 두 배 이상 높이는 상호지원적인 역할 분담”이라며 부부의 상호보완적 특성을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지만, 부부관계와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에도 적용된다.”

셋째,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기관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기관마다 질서와 안정을 위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남편에게 리더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그분께 복종하듯이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내리신다. 그다음에 일반명령을 구체화해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신다. 남편에게는 더 발전된 명령 즉,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신다.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한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임을 깨우쳐 준다.

넷째, 결혼을 통한 하나 됨을 말할 때 남녀 양성은 부차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다. 성경의 내용은 세속적인 성 혁명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동성애, 소아성애, 다양한 젠더, 성전환, 성적자기결정권 같은 그들의 의제와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게 성경적 부부 관계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성성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서로 주고받는 다정한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갈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에 비견된다.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가정은 부모의 가정으로부터 독립된 가정이어야 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독립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정의 리더로 남자를 임명하셨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특히 강조한 것이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은 남녀가 같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빌미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이는 그 가정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결국 한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혼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인간은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뒤를 잇는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부부관계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

아내에게는 복종하는 마음보다 남편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며, 남편에게는 생명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힘으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지만, 부부관계와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에도 적용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과 일반은총

들에 피는 백합화가 아름답게 느껴질 때

신우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세속적 인본주의 과학자였던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칼 사강(Carl Sagan)은 외계인 탐사 프로그램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96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외계의 지적생명체가 전파를 사용할 거라는 전제로 우주의 전파를 분석해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과가 없자 1993년 국가 예산이 중단되었으며, 간헐적인 민간 후원금으로 연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칼 사강의 들쭉에 대한 언급이 흥미롭다.

“지구에서 흔히 보이는 풀 한 포기나 만일 화성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기적일 것이다. 미래에 화성에 있을 우리의 후손들은 잔디 조각 하나의 엄청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무신론자인 칼 사강에게 들쭉의 가치는 그 희귀성에 근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 지구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띄는 들쭉이 그다지 중요한 관심과 의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성경에서는 들쭉인 백합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눅 12:27).

하나님은 믿는 자와 불신자 관계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그 자연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를 피우는 시기와 수명은 철저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된다. 영광이란 단어의 속성은 ‘드러낸다’에 있다. 전능한 창조주의 성품과 능력,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의 본질이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인 솔로몬 시대의 왕의 의복보다 훌륭한 이유는 이 들쭉이 하나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값비싼 장신구와 보화들로 치장된 옷의 가치를 어찌 흔한 들쭉과 비교한단 말인가? 예수님의 자연에 대한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희귀성과 같은 제한적 가치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가가 훌륭한 절대적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흔한 들쭉조차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름다움으로(God gives such beauty, 눅 12:28)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된 솔로몬의 옷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반은총을 베푸셔서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다양하고 아름답고 경탄스러운 자연 만물을 허락하셨다. 무신론자들도 자연 만물을 대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다. 아름다운 노래와 시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베풀어주셨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고백과 달리 무신론자 칼 사강은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허무와 고독의 메아리를 남겼을 뿐이다.

“우리의 지구는 그저 광대한 어둠의 우주 안에 갇힌 외로운 알갱이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히 11:3)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주변의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임을 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시 8:1).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Blaise Pascal)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나는 나의 구원자에게 두 손을 내민다. 그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며, 또 죽기 위해 지상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은혜로 편안한 죽음을 기다린다.”

일반은총이란 믿지 않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손짓인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안식을 담은 보물 상자이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때는 그 백합화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다.

2023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사랑 나누고, 외로움 녹이는 축제!

하늘대학부, 독거노인 80가구에 생필품 전달

2023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이 시작됐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12월 2일(토), 9일(토), 16일(토)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불우이웃 및 차상위 계층 가정 1천 75가구에 김치,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일(토) 하늘대학부 '사랑앓나눔' 현장에 동행했다.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은곡교회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80가구에 김치,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하늘대학부 '사랑앓나눔'은 사랑 나누고, 외로움 녹이는 축제였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2023 '사랑앓나눔'에서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관악구 독거노인 8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겨울 아침, 쫄쫄 싸매고 온 청년들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모였다. '사랑앓나눔'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는 말씀을 따라 사랑 나눔을 시작했다.

청년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물품 준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은곡교회'라고 적힌 스티커를 물품에 붙이고, 일렬로 서서 트럭에 옮겨 실었다. 청년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풍경과 어르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떠나는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했다.

그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아...

추운 날씨에 코끝이 다 빨개졌다. 하지만 청

년들의 표정이 정말 밝았다. 한참을 걸어 어르신 댁에 도착했다. 어르신을 뵙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동그랗게 모여 함께 기도했다.

"어르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어르신이 청년들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다. "추운 날씨에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따뜻한 울무차도 한 잔씩 내어주셨다.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어르신은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하셨다. 함께 지내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적적해하셨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매일 집 앞 공원을 한 시간씩 걸어보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

기도 하고, 치매예방센터에도 다니지만, 외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다. 그래도 자신을 찾아준 청년들 덕분에 그날은 한결 낯나다고 하셨다.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이 컸는데 청년들이 찾아와줘서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땀을 나서면서 청년들이 어르신을 꼭 안아드렸다.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르신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김태희 자매가 고백했다.

"어르신의 텅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아직 방문해야 할 집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르막길을 올랐다. 무거운 물품을 들고 있어도 청년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랑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큰 행복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대문 앞에서 서서 어르신을 위해 기도했다. 앞집에서 김장을 돕고 계시던 어르신이 굵은 허리를 부여잡고 할레벌떡 오셨다.

"뭘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어!"

청년들의 손에 들린 물품들을 보고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다. 물품에 '은곡교회'라고 적힌 스티커를 보고 교회에 관심을 보이셨다. 알고 봤더니 그 어르신이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니셨다고 했다.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났는데 최근에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다고 하셨다. 어르신께 은곡교회 가는 버스와 길을 알려드렸다. 청년들이 어르신께 기도제목을 여쭙보고, 다 함께 기도했다. 어르신이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은곡교회에 가겠습니다"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어르신의 고백을 듣고 박소현 자매가 벅차오르는 마음을 나눴다.

"어르신 댁을 방문할 때마다 나에게 가져 오

셨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모였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은혜를 나눴다. 무거운 물품을 들고 나르느라 지칠 만도 한데 청년들의 눈빛이 계속 반짝였다. 김하준 형제가 받은 은혜를 고백했다.

"'사랑앓나눔'을 하면서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섬기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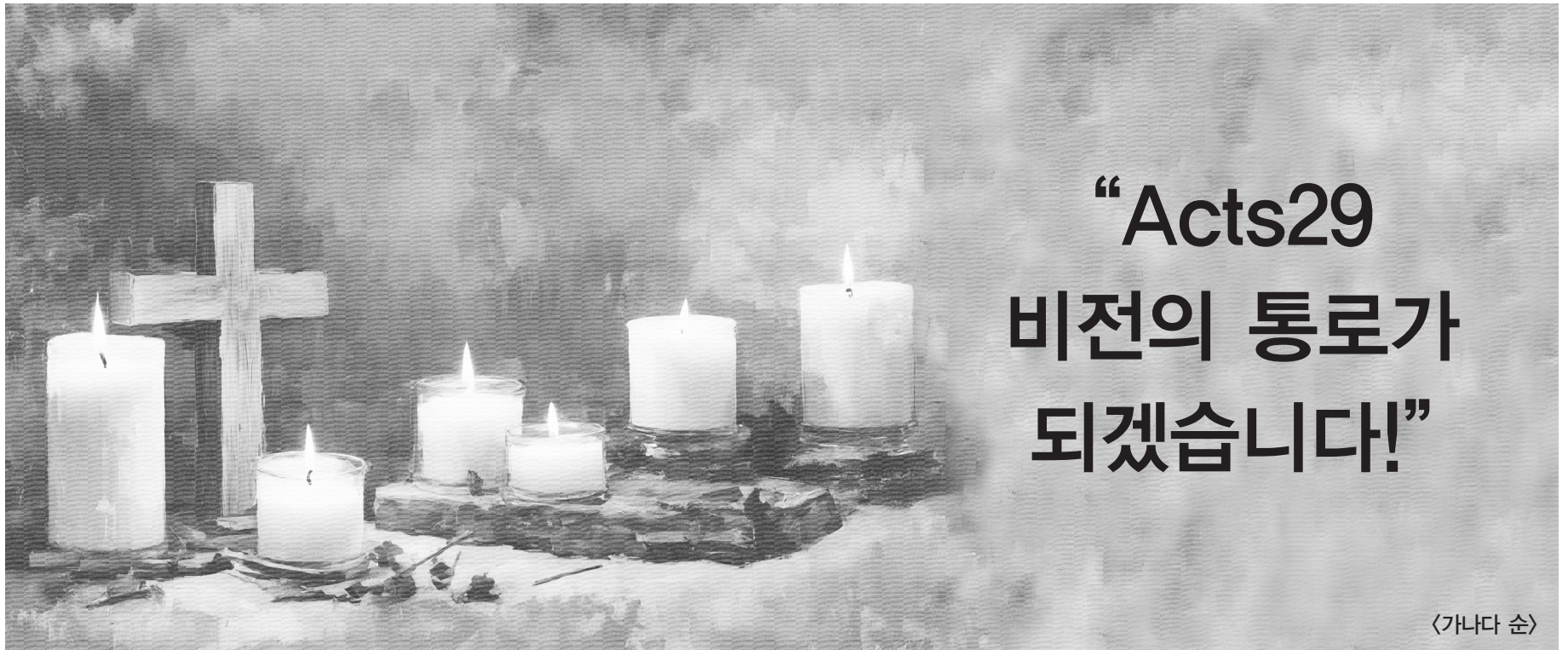
하늘대학부 청년들과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은곡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바로 이것이 '사랑앓나눔'의 백미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원동주 사회복지사가 하늘대학부 청년들에게 인사했다.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 청년들 덕분에 독거노인 80가구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대학부 '사랑앓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세대가 하나 되고, 교회와 기관을 연합하게 만들었다. '2023 사랑앓나눔'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2023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일정

공동체	장소	날짜
Pole2대학부	작은자교회	12월 9일(토)
요셉청년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2월 9일(토)
허브대학부	중앙사회복지관, 신양정로교회	12월 9일(토)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 산마루교회	12월 9일(토)
갈렙청년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12월 9일(토)
W청년부	나섬교회	12월 9일(토)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12월 16일(토)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12월 16일(토)
길청년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2월 9일(토)
CH+청년부	등대교회	12월 9일(토)



“Acts29 비전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

“축복의 통로 되는 삶 사는 장로”



강기훈 장로
(브릿지 33+)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24-26).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축복의 통로 되는 삶 사는 장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베푸신 그 사랑 전하는 장로”



강종도 장로
(OCC)

예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의미와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범 장로
(2000선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정직한 장로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적게 하고, 귀는 크게 하는 장로 되도록 함께 기도 해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로”



곽태일 장로
(신용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9-10).

지금부터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종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뜻에 순종하는 장로”



구자엽 장로
(교양은평)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의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 겸손과 온유로 주의를 살피는 삶을 살 것이며, 세우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권혁은 장로
(강남D)

늘 부족하지만 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며,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께 하듯 하는 장로”



김동우 장로
(한강)

이 모든 것은 한없는 은혜입니다. 장로사 관학교에서 배운 말씀으로 다림줄을 세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구원과 소외된 이웃사랑,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장로”



김동원 장로
(송파B)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가운데 섬길 기회와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직한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장로”



김상균 장로
(강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마음 다하여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며 섬기는 장로”



김승욱 장로
(평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동행하는 장로”



김종민 장로
(강남A)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며,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키우는 장로”



김지학 장로
(서초B)

하나님의 은혜로 6시에 부름 받은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더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바보행전 실천하는 장로”

김창원 장로
(강남E)

세상을 향해 바보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보며, 어려운 이웃을 바로 보살피고,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불에서 꺼내진 그을린 나무토막처럼 은혜로 덧입혀져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돕는 장로”

김형석 장로
(수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어진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역의 결과보다 은혜로운 과정을 중시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 및 교역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포용과 화합으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돕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장로”

노경한 장로
(강남D)

먼저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총성된 종으로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잘 섬기며,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장로”

문정식 장로
(부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지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삶의 최고봉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뿐임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장로”

박용권 장로
(김포)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주님의 제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함께함으로 저를 비우는 주님의 제자로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되고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로”

박용식 장로
(양지)

하나님의 귀하고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 택하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협력하며,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로”

박용원 장로
(강남B)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장로의 직분을 온유와 진실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신실한 종으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충성되게 섬기는 장로”

박용익 장로
(대학천)

제가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장로 직은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의 은혜와 이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맡은 바 사역에서 기도하며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자리에 맞는 장로”

박현 장로
(서대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커리큘럼을 통과하고 배우며, 교제하고, 느끼게 되니 나도 모르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리에 맞는 장로로서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장로”

배병태 장로
(분당B)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연합하고, 힘든 자들을 도우며,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장로”

손기태 장로
(노원)

말씀과 기도에 힘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겸손하며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낮고 겸손한 장로”

송기선 장로
(서초B)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늘 감사하며 낮고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따라가는 장로”

신귀현 장로
(S브릿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니, 모든 인생과 모든 민족에게 그 나라가 풍성히 임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바보 장로”

신재영 장로
(양천)

나는 죽고 말씀과 사랑과 온유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예수 바보장로’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장로”

심천보 장로
(성동광진)

연약한 저를 장로 직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생 골방의 기도자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장로”

양성철 장로
(분당A)

부족한 저를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좇으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 된 청지기 장로”

양현열 장로
(대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착하고 충성 된 청지기, 성도들에게 친근하고 너그럽게 다가가는 교우, 공동체에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장로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화평을 이루는 장로”

윤상철 장로
(강동)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장로로 세워주신 그 귀하신 뜻을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성숙, 하나 됨을 위해 쉼어지는 밑일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겸손하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거룩한 삶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장로”

윤석일 장로
(서초A)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도행전적 온누리교회의 Acts 29 비전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장로”

이삼형 장로
(과천의왕)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 순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모든 사람에 본이 되고,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헌신자 된 장로”

이상형 장로
(인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섬기고, 더 기도하는 믿음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맡겨 주신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교회와 공동체, 교역자와 성도들을 세워주고 중보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장로”

이성신 장로
(일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같은 장로”

이성일 장로
(부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주님의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장로, 하나님 마음과 사랑이 가득해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그릇 같은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심 따르는 장로”

이신준 장로
(푸른누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지키고, 동참하고, 전하는 장로”

이원장 장로
(용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와 겸손으로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분별과 지혜로 개혁에 동참하고 사랑받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20년간 충성되게 섬기며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전하겠습니다.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장로”

이자형 장로
(강릉인본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 버림받은 한 영혼, 존재감이 없는 한 영혼, 자존감 낮은 한 영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지하며, 격려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장로”

이찬주 장로
(관악금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거듭나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명을 살리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청지기 된 장로”

이동우 장로
(도곡)

세상 속에서 비난 받지 않으며, 교회와 공동체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가정의 신실한 남편이자 자녀들과 손주를 축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순종하며, 충성하고, 기도하는 장로”

임채남 장로
(수원)

장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장로,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장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예수바보행전 겸손히 실천하는 장로”

정석순 장로
(대전)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창조질서를 수호하고, 낙태와 자살의 생명경시 풍조와 싸우며, 학교와 다음세대에 복음과 축복의 깃발을 들고, 이웃과 열방의 가없는 생명들을 돌아보며, 삶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겸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감사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장로”

정연식 장로
(영등포구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신 소명 주님 사랑으로 감당하며, 감사와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

정용욱 장로
(동작)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증인 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분이 되고, 정직과 겸손, 화평으로 덕을 세우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장로”

정찬희 장로
(가정사역)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주시는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장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장로”

주성대 장로
(동대문중앙)

지나온 모든 과정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장로로서 세워주신 주님, 어느 곳이든 부르신 사역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감사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장로”

차춘근 장로
(송파A)

2023년 장로사관학교 훈련생으로 훈련 받으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실수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 않으려는 애씀이 저와 같은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멋진 모델이 되는 장로”

최경주 장로
(OMA)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저를 장로로 불러주셔서 정말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더 멋진 모델이 되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주변을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장로”

최용일 장로
(동대문중앙)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겸양의 장로로서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교회와 공동체, 사역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장로”

하상진 장로
(이촌)

모퉁이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동역을 이루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라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을 위하여 섬기는 장로”

한동욱 장로
(분당B)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섬니다. 온 누리가 주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온유한 전도자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장로”

한승만 장로
(남양주)

“나를 따르라(follow me)”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리더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함께 따르기를 ‘초청하는 자’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겠습니다.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장로”

한영우 장로
(Point5)

제가 섬겼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 저를 부정하며 지금 이곳에서 뜻하신 바를 이뤄내는 순종으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로”

허대행 장로
(강남B)

무익한 종을 장로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질그릇을 깨뜨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귀한 옥합을 준비하며, 참 왕이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소외된 이웃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관계, 화평, 기쁨 일으키는 장로”

홍순직 장로
(OCC)

이재훈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리더십>에서 야망과 자신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반면,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역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와 화평과 기쁨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이뤄 가는 장로”

홍승우 장로
(과천의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겸손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에베에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가는 지체로 살겠습니다.

“연약한 자와 다음세대 섬기는 장로”

황성주 장로
(차세대)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양무리의 분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연약한 자들과 다음세대 청소년들을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창조 질서, 구원 역사의 큰 흐름 보기를

“성경 통독을 끝까지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성경통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꼭 순서대로 읽어야 하나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자주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건강을 관리해야 하나님과 성도들께 누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일 걷다 보니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공원이나 숲에서 산책하거나 등산을 갔다. 오랫동안 등산을 다녔다는 장로님이 산을 오르고, 숲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걷다가 멈춰서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보는 것도 좋고, 정상에 올라 숲 전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산과 산 사이의 차이도 보이고, 각자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질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도 마찬가지다. 큐티는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보는 것이다. 성경의 한 장, 한 구절을 세밀하게 따라가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큐티를 통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간다.

성경통독은 숲을 보는 방식이다.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장과 절을 넘어 숲 전체를 바라보면 나의 하루와 인생을 넘어서게 된다. 성경통독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하루를 인

“성경 전체를 쭉 읽으면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과 숲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 나라의 창조질서,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바라봐야 한다.”

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과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다.

성경통독은 전체적인 숲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안에 ‘창조 질서’와 ‘가정의 첫 설계도’ 등 성경 전체의 전제가 되는 메시지가 많

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율법, 제사라는 구약의 ‘전제’들이 담겨있다. ‘전제’를 볼 때는 ‘전제’를 이해해야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앞에서부터 읽는 것을 추천한다.

앞에서부터 읽는 방식은 성경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읽는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사람들은 모두 신앙에 대한 나름의 관점

을 가지고 있다. 그 관점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익숙하게 읽는 본문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간과하기 쉽다.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본문들을 빠짐없이 주어진 대로 읽는 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모태신앙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다윗과 골리앗이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막상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과 작은 표현이 새겨져 있고, 구석에 기록된 말씀 한 절이 보석같이 남겨져 있다. 이미 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전체를 꼼꼼하게 읽는 통독과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성경은 상당히 분량이 많다. 66권 전체를 읽는 게 무리라면 구약이나 신약으로 나눠서 읽거나 신약을 먼저 읽는 방법도 있다. 성경에 열의가 막 생긴 초신자의 경우에는 사복음서 통독도 의미가 있고, 모세 오경, 바울 서신으로 나눠 읽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새해에는 성경 전체

를 쭉 읽으면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과 숲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창조 질서,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서진 목사
(허브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인정하고 공감하는 좋은 습관

마커스 위너와 크리스코시는 <하루 15분, 부부의 시간>에서 부부가 세심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예민한 감정들이 있다고 소개한다. 그 감정은 슬픔, 불안, 절망감, 수치심, 분노, 역겨움이다. 슬픔은 상실감과 상실, 다양한 어려움 등으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다. 불안은 심리적 안정 상태가 극도로 깨어진 상태인데 걱정, 패닉, 강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절망감은 무기력감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의 감정이다. 수치심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는 감정 상태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고,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역겨움이란 불쾌하고 혐오스러움을 느끼는 감정이다. 역겨움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이어서 사람마다 느끼는 역겨움이 다를 수 있다.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예민한 감정들은 한 가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감정 상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때에 따라 어떤 감정이 더 두드러지고,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예민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민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세심히 그 감정을 살피고

공감해 준다면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며 위로를 받는다. 인간에게 가장 슬픈 기억은 홀로 버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일 것이다. 홀로 버려진 상태에서 느껴지는 힘든 감정과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 고통이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는 함께 행복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배우자의 힘든 감정도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더욱 세심하게 반응해야 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배우자가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대인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면 수치심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해서 한 없이 무가치하게 느끼고, 비난과 정죄하는 고통을 알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반응하고, 배우자의 불안을 이해하면서 받아주고 반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불안해한다면 그 주파수에 감정선을 맞춰야 한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선을 따라서 같은 마음과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 배우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배우자의 민감한 감정이 이해되지 않고, 깊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듣는 법을 습득해서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자신의 다

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오롯이 혼자 경험하는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걸어갈 수 있으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불안정하고, 세심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선 들어야 한다.

배우자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듣는 법에 익숙해지면 정확한 감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행동에서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역겨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고, 그 감정에 맞는 소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불안을 겪는 배우자에게 분노를 다루는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먼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는지 내면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느끼는 민감한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경험하는 유쾌하지 못한 감정이 불안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꾸미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만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쌓이

면서 부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느끼는 민감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말이다. “뭐가 불안한데?”, “절망감 가질 필요 없잖아!” 등의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부부는 배우자가 느끼는 민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그 감정에 대한 인정과 공감의 형태로 나타난다. 불편함을 느끼는 배우자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라는 식으로 배우자가 느끼는 민감한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정과 수용 이후에는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위로와 격려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부부의 상호작용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습관이 형성되면 자신도 모르게 익혔던 행동 패턴이 드러나게 된다. 배우자가 민감한 감정들을 경험할 때 인정하고, 공감하는 좋은 습관으로 친밀감을 경험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이웃들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엔젤트리 사연 2,404건 연결 기다려

2023 엔젤트리 사연이 총 7,408건 접수됐다. 그중에서 5,004건이 연결됐고, 2,404건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12월 7일 기준).

2023 엔젤트리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와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에서 참여하면 된다. 사연을 뽑은 다음 사연 속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선물을 보내면 된다. 사연이 연결되면 엔젤트리본부에서 개인 연락처로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 준다.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엔젤트리 대상자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아보도록 배송을 서둘러야 한다. 선물은 가능한 ‘엔젤트리’ 이름과 주소, 연락처로 보내는 게 좋다. 선물을 발송한 성도들



2023 엔젤트리 사연 2,404건(12월 7일 기준)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은 사회선교본부 엔젤폰(010-6442-0191)에 선물 발송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채탈출 119’ 참가자 50명 모집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정 및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나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js003225@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문의: 02-3215-3434

갈렙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갈렙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대면과 비대면 과정으로 진행된다. 1~5주차 비대면, 6~8주차 국내 선교지 방문 등 대면으로 열린다.

참가신청은 1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2833-9936

‘샬롬이스라엘’ 송년 모임

‘샬롬이스라엘 송년모임’이 12월 16일(토) 오전 9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간증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에게해 크루즈’ 참가자도 모집한다. 내년 4월 29일(월)부터 5월 7일(화)까지 이스탄불, 트로이, 에베소, 밧모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 송년 모임(010-2930-2322)
스터디투어 (010-4902-1022)

이수공동체 ‘3040을 위한 축복 축제’

12월 30일 오후 4시 서빙고 두란노홀

이수공동체 ‘3040을 위한 축복 축제’가 오는 12월 30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결혼 이후 성인공동체 이동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 성인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젊은 가정의 대상이다.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수공동체에서는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상담 및 코칭을 제공하고, 공동체 정착을 돕는 ‘링크순’과 ‘젊은 다락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10-5917-5608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공동체 홈커밍(Home coming) 잔치

탈북민 공동체 ‘하나공동체’가 지난 12월 3일(일)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홈커밍(Home coming) 잔치를 열었다. 96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동욱 목사(하나공동체 담임)는 “하나공동체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공동체 예배자 100명 이상을 세우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강해욱 권사는 “하나공동체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문의: 010-2461-0222
예배: 주일 오후 2시 JDS홀(지하3층)

NGO 더멋진세상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이재훈 위임목사, 김광동 장로 등 60여 명 참석

NGO 더멋진세상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12월 7일(목) 라이즈오토 그래프컬렉션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및 실행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는 김광동 장로 환영인사,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특순, 만찬, 축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NGO 더멋진세

상의 사역은 현지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NGO 더멋진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광동 장로는 “13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기도와 헌신,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도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Oh! Happy Day!”

수원, 수요일여성전도축제 19명 결신

수원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전도축제 ‘Oh! Happy Day!’에서 19명이 결신했다. 수요일여성전도축제 ‘Oh! Happy Day!’는 12월 6일(수)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초청자, 전도대상자, 스태프 등 230명이 참석했다. 초청자 39명 중 19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약속했다.

수원 전도집회 ‘Oh! Happy Day!’

’에서는 박요한 목사(프렌즈교회 담임) 특순 및 간증, 김현실 목사(수원온누리교회) 설교, 결신, 블레싱 등이 이어졌다. 이날 김현실牧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인생의 평안과 하나님 자녀 됨의 권세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홍하영 기자

스리 하르탄토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스리 하르탄토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근로자입니다. 현재 ‘인천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11월 23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심부전증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병 시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분이 미등록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스리 하르탄토 형제가 무사히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의: 02-3215-3208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2-62405 온누리교회



CCF 더 멋진 당신 ‘The Compass’

이재훈 위임목사, 이재욱 회장 등 450명 참석

CCF(Christian CEO Forum)가 주최하는 CEO 맞춤 전도집회 ‘더 멋진 당신’ 콘서트가 지난 12월 3일(주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막 올랐다. ‘The Compass’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CCF, CEO School 관계자 등 450명이 참석했

고, 전도대상자 65명이 결신했다.

이날 이재욱 회장(CCF 회장)은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재훈 위임목사는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와이 미션?’ 수료식

오사카 시온교회 성도 와이미션 39명 수료

지난 12월 3일(일) 오사카 시온교회에서 ‘와이 미션?’ 수료식이 열렸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와이미션 스태프, 수료자, 오사카시온교회 성도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김홍주 목사 설교, 간증, 수료증 수여, 특별 찬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생 39명이 수료했다.

오사카 시온교회는 일본 히가시 오사카시에 있다. 아다치다카오 목

사가 시무하고, 성도는 120여 명 정도다. 순수 일본인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다. 허귀재 선교사(TIM-Japan)의 도움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격주 수요일에 ‘와이미션 세미나’를 열었다. 김철희 목사, 이노우에 마키 선교사,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다카미자와 에이코 목사, 요시하라마부 목사, 조윤희 선교사 등이 강의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조유리 성도(김포공동체)

“저는 열방의 어머니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어머니’라는 말이 듣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돌아서서 숨죽여 눈물 흘리기도 했다. 그동안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건강을 잃었던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고, 사역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그동안 회피하고 있었던 슬픈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다. 예전에 고민했던 마음이 어느새 푼 하고 튀어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것일까?’ 하는 마음의 소리였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순간 스쳤던 생각이다.

옆 사람의 촛불을 나의 초에 옮겨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촛불을 넘겨주었다. 그곳에 모인 어머니들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을 때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의 아내로 세우셨다. 내가 작은 빛을 밝힐 때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가고, 사역의 자리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어머니의 불꽃이 그 자리에서 빛남으로 연합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라고 삼창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그럴듯한 어머니가 되는 스킬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외면하고 싶은 내면과 덮어두고 싶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용서와 화해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회복되어 하나님 중심의 어머니가 되도록 세밀히 돕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매번 주어지는 과제가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진정성 있게 하나씩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제는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 세상의 가치관을 좇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열방을 자녀로 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골방에서 기도로 도울 것이다. 그토록 소망했던 ‘어머니’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 관악금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참가자 간증



/ 전명희 성도(사랑의교회)

덕분에 전도의 기쁨을!

직장 신우회와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BBB)을 같이하는 한 자매님이 온누리교회 관악금천공동체에서 전도집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 자매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맞춤형전도집회가 성경공부모임(BBB)과 겹쳤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축제를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악금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지금 사는 아파트를 계약해주신 공인중개사 자매님의 사무실을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 그 자매님이 요즘 번아웃 상태라며 근황을 나눠 주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열 번 정도 나와 만나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 자매님이 흔쾌히 좋다고 했다. 사영리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새생활 시리즈로 기초순예배를 시작했다. 그 자매님에게 전도축제에 참석해 달라는 말을 못 하다가 용기 내서 권유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옛날에 가본 적 있다며 온누리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

전도집회 당일 엄청 곳은 낯설었는데도 그 자매님이 먼저 나를 데리러 와 주기까지 했다.

전도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자매님이 마음에 늘 있던 찝찝함,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다며 행복하다고 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때 나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 지금 그 자매님은 <우리말 성경>을 사서 새벽에도 성경책을 읽고 싶어 눈이 떠지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만화성경도 사서 읽으려고 한다고 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성경에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게 신기하고 놀랍다고 간증했다.

전도집회 초대 과정에서 예비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엇보다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관악금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덕분에 전도의 기쁨을 누렸다. 범사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자랑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 통일선교학교 아웃리치 후기



/ 노순용 집사(용산공동체)

지난해 통일선교학교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면서 한반도 복음 통일의 현장을 가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아웃리치를 갈 수 있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부대의 철책선이 인상 깊었다. 6·25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운 유엔군의 수고와 헌신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국제인도법에 따라 비록 적이지만 그들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안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북한군묘지를 둘러보아서 유익했다.

태풍전망대를 방문하면서 베틀고지 전투 현장을 보았다. 그곳에서 유엔군의 일원인 태국군 참전 기념비를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 6·25전쟁 당시 하나님은 연약한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유엔의 깃발 아래 전투부대 파병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물자지원국 41개국 등 63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돕게 하셨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느끼고 볼 수 있어서 보람됐다. 믿음의 공동체답게 아웃리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방문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새롭게 느낀 의미 있는 답사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

복음 통일 넘어,
저 예루살렘까지!

이 쓰러져 간 수많은 유엔군 참전용사를 생각하며 그들을 보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선교학교가 보여준 영적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적군묘지라 불리던 장소가 중국군 유해 송환 이후 북한군 묘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전투 현장에서도 인도주의 이웃사랑을 보여준 선배 전우들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호국영령을 앞서 보여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통일선교학교 아웃리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을 사랑의 하나님이 만 배로 축복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통일선교학교가 차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현장 답사를 접목함으로써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알차게 진행될 거라 기대한다.

이 순간에도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넘어서서 저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 강동온누리교회 아웃리치 간증



/ 박지양 성도(강동온누리교회)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불가리아 소피아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라 네프스키 대성당 땅 밟기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성삼위교회를 방문해서 박서규, 전미란 선교사님의 간증과 비전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선교사님을 이곳에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았다.

김장김치 담그기와 차세대 사역, 주일예배 특선과 간증, 점심 애찬식을 준비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준비한 덕분에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역을 마치고 비전하우스에서 은혜를 나누는 때 모두 한마음으로 “이곳에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나도 그동안 메달라 있던 마음에 생수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불가리아 아웃리치를 마치고 그리스로 이동했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는 유적지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

한 곳을 찾아 산꼭대기에 지은 메테오라 수도원을 보면서 나의 예배 태도를 점검했다.

불가리아 성삼위교회에서 불렀던 찬양과 메테오라 수도원 아래 숙소 마당에서 찬양했던 시간이 특별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매인 것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일과 분주함이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오래전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서원했던 게 생각났다. 예배와 삶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던 섬김의 시간도 기억나게 해주셨다.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던 나에게 부르신 소명에 순종할 때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권사칼럼

익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서울과 가평을 오가며 두 집 살림하다 아예 가평댁으로 눌러 앉은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 어수선했던 이삿짐이 어느 정도 정리 되고 나니 이제야 안정을 찾는다. 늘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에 익숙하다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여유에 한동안 적응이 안 됐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공연히 허둥거려졌다.

이곳은 오후 7시만 되면 벌써 어둠이 내린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적막감이 한동안 마음을 허하게 했다. 슬며시 외로움이 불청객으로 자리 잡았다. 불을 환하게 밝히고 녀석과 맞짱을 뜬다. 생전 보지 않던 TV 볼륨을 올리고, 외면하면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친다.

한가함이 파리 뜨는 한 낮, 거실에 햇살이 파사롭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정원에 세워둔 그네에 앉는다. 시리도록 파란하늘이 가슴에 찬다. 적당한 찬 공기의 감촉이 상큼하다. 바람이 남은 나뭇잎을 흔들며 수런거리는 소리가 귀에 걸린다. 온통 벗어버린 빈 트랙이 더 넓어졌다. 비로소 혼자 덩그러니 남아 오로지 스스로 책임이 되어버린 나의 삶을 어떻게 잘살아가야 할까 생각이 미친다.

게을러지면 한없이 늘어지는 일상을 적당한 긴장감으로 불들지 않으면 촌구석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지만, 나를 위해 아침마다 정성스레 화장을 한다. 여자가 거울에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몸도 마음도 늙는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장을 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공을 들여 화장하기분도 상쾌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대충 때워 버리기 쉬운 식사도 정성스레 만들어 나에게 대접하기로 한다. 놀이 삼아 요리를 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옷을 차려입고 나갈 놀이터도 물색했다. 가까운 동네 마을 회관에 개설된 하모니카 교실에 등록했다. 평균 연령 80대에 육박하는 마을 어르신들이 열서너 명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분들의 삶의 열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노인회관에서 자원 봉사하는 전문 강사의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다.

매일 다섯 바퀴 정도 마을 둘레길 걷기를 생활화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시를 큰 소리로 외우며 걸을 수 있어 참 좋다. 나머지 시간은 하모니카와 독서, 글쓰기에 배분하니 전원생활의 하루가 금세 지난다. 모처럼 하나님하고도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 성경도 읽고,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찾아 듣는 여유도 생겼다. 그동안 바빠서 인사도 못 전하던 친구들에게 전화로 문안하며 마음을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애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

노사연이 불렀던 ‘바람’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려 본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진솔하게 나를 대면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감사한다. 나도 그렇게 조금씩 익어가기를 소망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니엘 선교사
(레바논)

처음 레바논에 도착해서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레바논 자흘레란 마을에 정착해서 현지 쿠르드 사역자 가정과 교제했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자녀와 친구를 맺고 적응하던 시점에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현지 사역자가 저희 팀과 사역을 같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지 친구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역자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현지인들도 그 사역자를 따라 모두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이탈로 매일 저녁 드리던 쿠르드예배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레바논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무렵 사역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제 안에 있던 불만이 터져 나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히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서 왜 저희 사역을 막으시나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하셔서 취직도 포기하고 선교부터 나왔는데 왜 사역을 못 하게 하시나요?” 제 뺨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더니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힘이 다 빠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몇 분 지나서 팀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출장에 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행했던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출장을 시작으로 이어진 3개월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언어 수업과 센터 방과 후 수업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코디네

이터 선생님과 자흘레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아슈꾸트란 지역으로 이동해서 쿠르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하루에 세 가정, 가정 당 2~3시간 정도 방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듣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많은 가정이 궁핍하게 살고 있고, 자신들을 도와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2가정 정도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들었던 예수 이야기를 꺼내며 질문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대한 질문을 쏟아 내며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고, 성경의 질문들만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싶다”고 갈망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끝이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싶다는 쿠르드 사람들의 바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와 다른 단기 선생님, 코디네이터 선생님 가정이 아슈꾸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건물 하나를 빌려 그곳에서 살며 저녁마다 쿠르드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가정의 쿠르드 사람들과 우리 팀은 예수님 오실 날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디오, TV, 꿈, 미디어 등 많은 방법을 통해 무슬림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슬림들의 문을 직접 여시고,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자입니다.

신앙에세이



전홍렬 선교사
(평택M센터)

평택M센터는 평택역 가까운 곳에 있다. 매주 많은 외국인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면서 고단한 삶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장소가 되었다. 평택M센터는 2009년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가정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몽골, 중국, 러시아, 한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4년 전, 내가 평택M센터에 처음 왔을 때 더 많은 성도를 섬기고, 본이 되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도리어 내가 섬김을 받고 있고, 외국인 성도들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는 몽골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다. 몽골어예배는 언제

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다. 대부분 성도가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한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줌(Zoom)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다. 매일 새벽 함께 기도하고, 가정과 M센터에서 예배드리면서 타국에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평택M센터의 자랑이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지체가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돕고,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몽골어예배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2년 전, 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평택M센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그룹 시간에 그림그리기 활동을 했다. 알록달록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여느 학생들

과 달리 검은색으로 해골을 그리고, 사망, 죽음 등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그림을 완성했다. 아마 당시 그 학생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그 학생이 고학년으로 성장했다. 키도 훌쩍 자라고, 공동체의 귀한 일원으로 성장했다. 차세대 담당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평택M센터에서는 이주민 자녀들, 특히 중도입국 차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땅의 차세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 이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열방예배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베트남, 한국 등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어 사역하고 있다. 평택M센터는 이주민

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평택은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평택M센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평택역에만 가보더라도 수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다. 현재 평택역 광장이 이단 종교들의 집합장이 되어 전도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은 이주민이 몰려올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

평택M센터의 소명은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 귀한 사역에 협력해주고, 응원해주는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 우리 곁으로 다가온 수많은 이주민을 섬기고, 열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열방이 하나되는 평택M센터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한누리학사 탈북민 대학생 남자기숙사 입주자 모집
모집: 서울 소재 2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동일 한 과정의 입학 예정자
인원: 남자 6명
문의: 010-7107-5270(한누리통합팀)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수요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라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fondant

2024년 풍당과 함께

새해 성경 통독 갓 GOD 생 챌린지

신청기간 12월 6일(수) ~ 12월 22일(금)



3가지 챌린지 중 하나를 골라
성경 통독도 하고 리워드도 받아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벤트 페이지



풍당 앱 다운로드

선착순
300명

챌린지 1 갓생살기 X 1개월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선착순
150명

챌린지 2 갓생살기 X 6개월

24주 성경 통독 챌린지



챌린지 3 갓생살기 X 12개월

365 성경 통독 챌린지



성경 통독 콘텐츠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우리말성경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한국어)



고고 바이블(영어)

한국로잔·CGN이 함께하는 2024 말씀달력

한국로잔위원회 추천말씀이 담긴
CGN 말씀달력이 출시되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2024 CGN 말씀달력을 선물하세요.

구입처 :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

